북스

Books

스스로 부자 되는 법 제1계명

시간을 투자해 '금융IQ' 높여라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

국민의 10%가 90%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문제는 발등의 불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곤 한다.

양극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답은 명쾌하지만 방법론을 내세우라고 하면 여전히 안갯속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황금가지)로 유명한 일본계 미국인 4세 로버트 기요사키와 미국 성공신화를 대표하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며 부를 거머쥐기 위한 노하우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융교육의 중요성이다. 이른바 금융IQ(Financial Intelligence Quotient)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내에서 아끼며 열심히 사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을 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 재정적 위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자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금융IQ는 단순히 세금 덜 내는 법, 현명하게 빚지는 법,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법 등을 아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금융IQ를 "국내 및 국제 경제 해역의 해도를 만들고, 현재를 넘어선 미래를 바라보며 그에 의한 평가와 통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기요사키는 금융IQ를 높이기 위해 기업법과 회계학을 먼저 익히라고 제안한다. 큰 부자는 대규모 기업가이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경제 관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도 회계학은 꼭 필요하며 특히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세가지 재무제표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저자들은 재정적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을 '돈'에 두지 않고 '시간'에 둔다. 이들이 말하는 시간 역시 금융IQ를 높이는데 투자하는 시간이다.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기는 투자'를 위해 필요한 부의 공식 5가지를 든다. 남의 돈(빚)·시간·재능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레버지리(지렛대 효과), 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 수익과 리스크를 포함한 정확한 예측력, 부동산 투자의 특징으로도 꼽히는 창의력, 자기 사업을 키우는 확장력 등이다.

'부자수업 10강'과 특별대담을 담은 동영상 CD가 별책 부록으로 실려 있다. 〈리더스북·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기요사키(왼쪽)와 트럼프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과 투자의 세계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시리즈 2차분 4권 출간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기획하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시리즈 2차분인 이상룡·조만식·이준·홍범도 편 등 4권이 동시 출간됐다. 지난해 나온 1차분은 최광옥·황학수·김원봉·안재홍 편 등 4권.

집필은 장규식('조만식' 편) 중앙대 교수, 채영국('이상룡' 편) 국민대 연구교수, 이계형('이준' 편) 국민대 강사, 장세윤('홍범도'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대충 이름만 들었거나, 이름조차 생소한 독립운동가들의 자세한 활동 내역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3·1절'의 달 3월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듯. 풍부한 사진과 그림, 지도 등이 설명에 힘을 싣는다.

〈역사공간·각 권 1만원〉

문명으로 위장된 삶의 실체 찾기

뉴기니에서 온 편지 유금호 지음

올해 21년간 몸 담았던 목포대학교를 떠난 소설가 유금호(65·사진) 교수가 새로운 여정을 위해 배낭을 꾸리며 소설집 '뉴기니에서 온 편지'를 펴냈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11편의 소설은 넓은 의미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묶여 있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깊은 사연을 안고 세계 곳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상처를 담고 흘러들어온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현지민들의 생경하지만 충실한 삶과 가치관을 접하며 새로운 생명에의 기운을 느끼기도 한다.

표제작 '뉴기니에서 온 편지'는 가정도 꾸리지 못한 3류 시나리오 작가가 어디로든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도피처로 삼은 파푸아뉴기니가 주 배경이다. '덤으로 받은 인생, 전혀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원주민들의 삶속으로 뛰어든 P회장의 모습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본성을 응시한다.

각 작품 속 주인공들의 발걸음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 곳, 몇만년 전일 지도 모를 선사 시대의 어느 원주민 마을('즐문마을 기행')을 꿈속 처럼 떠돌고 페루 마추픽츄('그 강변 키니네꽃'), 돈황석굴('신기루를 찾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암보셀리, 그 사바나의 새벽'), 인도 뭄바이('시실리에서')로 이어진다. 모두 저자가 직접 찾았던 곳들이다.

196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하늘을 색칠하라'가 당선되며 등단한 유씨는 '만적' '소설 열하일기' 등의 작품을 펴냈으며 박영준 문학상·한국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도서출판 이유·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석영의 맛있는 세상=황석영의 자전적 요리 에세이 '노티를 한 점 먹고 싶구나'(디자인하우스)가 제목을 바꿔 달고 재출간됐다. 어린 시절 먹었던 누룽지, 김일성 주석과 먹었다는 언 감자국수, 감옥에서 먹었던 부침개 등에 얽힌 이야기가 실렸다. 〈향연·1만원〉

▲김정일 최후의 도박=일본 아사히신문 대기자인 후바나시 요이치가 6자회담을 취재하는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 등장 정치인만도 6개국 총 160여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촉발된 제2차 북핵 위기를 둘러싼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린다. 〈중앙일보시사미디어·2만2천원〉

▲한국대중매체사=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개한국 대중매체의 변화상을 정리했다. 저자는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일제 식민통치, 군사독재, IMF 등 한국 현대사를 통해 다양한 얼굴로 변하는 언론을 비판한다. 〈인물과사상사·3만2천원〉

▲목만치(전 3권)=백제 장군 목만치의 삶을 통해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학관계와 이에 얽힌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낸 역사소설. 일본 천황가의 뿌리인 소아 가문을 세운 목만치의 삶이 소설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예담·각 권 9천800원〉

▲허세욱의 한시 특강=고려대 중문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허세욱씨가 200여편의 한시를 골라 주제별로 마흔두개의 강의를 들려준다. 중문학자이자 수필가 겸 시인인 저자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한시 번역으로도 유명하다. 춘망, 소쩍새, 기러기, 눈 등을 주제로 42장의 한시 소나타가 펼쳐진다. 〈효형출판·1만5천원〉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미국 국방부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해 "소련과 공산주의 이래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미국이 작은 나라 베네수엘라를 왜 두려워하는지 책을 통해 보여준다. 〈시대의창·1만6천500원〉

▲시사SF='한겨레21'에 8년 동안 연재됐던 조남준씨의 동명 시사만화 코너 중 114편이 수록된 단행본. '정치·경제', '사회·역사·노동', '사람·교육·여성', '문화·언론·환경' 등 주제별로 나뉜 2쪽 짜리 만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되돌아본다. 〈청년사·9천800원〉

▲태의경의 우주콘서트=KBS 아나운서 태의경씨가 들려주는 천문학 이야기. 저자가 전문가가 아닌 탓에 글이 덜 학문적이고 딱딱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밤하늘은 왜 깜깜한가"와 같은 단순한 질문과 이를 풀어가는 해박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이 돋보인다. 〈동아시아·1만2천원〉

▲타짜 4부 벨제붑의 노래(전 6권)=허영만·김세영 콤비의 만화 '타짜' 시리즈가 완간됐다. 총 22권. 4부 벨제붑의 노래는 시리즈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갈등구조가 뚜렷한 작품으로,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인간의 분노와 복수가 생생하게 묘사된다. 〈랜덤하우스코리아·각 권 8천500원〉